



**8월**의 돈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입돈육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현재 이미 작년 동기 에 비해 3배 가까운 6만6천여 톤의 돈육이 수입된 가운데 이중 5만여 톤에 가까운 물량이 현재 판매 대기중에 있기 때문이다. 거의 국내 한달 소비량에 가까운 이 물량을 다이옥신 오염파동으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시장이 얼마나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국내돈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산 돈육을 주로 소비하는 대형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경우 돈육수요는 여전히 강세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 수입돈육 소비처인 식당이나 정

와 출하지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두수 감소에 따른 돈가상승으로 수출 수요는 이미 지난 3월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가 이미 35%나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오염파동으로 인한 국산돈육의 갑작스러운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으로 인해 국내 돈가는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지육 가격은 kg당 3,400~3,500원이다. 단기적으로 국내 돈가의 지속적 강세가 예상되지만 국내 돈가 강세가 장기화되면서



강세원 이사  
(푸리나코리아)

## 8월 돈가 지속적 강세 유지 전망

육점 등의 매출이 벨기에산 돈육외 다른 국가 수입돈육은 안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8월부터는 수입돈육에 대한 수요가 완전 회복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국내 돈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의 국내 출하두수 및 생산전망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현재 전국 양돈사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62%나 감소하였으며 이중 육성·비육돈 사료 생산량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올 여름 출하 예상두수가 크게 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더위로 인한 성장감소

나타난 여러가지 시장 동향을 볼 때 당초 올 연말까지는 지속화 되리라는 장기 예상치에는 다소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돈육의 물량 압박요인이 예상보다 큰데 다 가을철 출하두수를 전망케 하는 것만봐도, 꾀먹이사료 등의 생산량도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빨리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여기에 수입돈육의 소비침체 현상까지 계속 맞물리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예상보다 이른 돈가 반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8월의 돈육시장 동향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팀)

다 이옥신 파동으로 인해 국내 돈육 시장 전체가 침체된 가운데, 99년 6월말 발표된 국내 사육두수가 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돈가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돈육 소비 감소가 장기화 되고 대일 돈육 수출의 감소, 수입돈육의 대기물량 증가로 인해 돈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라 믿어진다.

다이옥신 파동이 없었다면 - 결과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 국내 육가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삼겹살 및 목살 재고가 소진

약관화하다.

8월 돈가는 3,300원~3,400원/kg 선으로 예상된다. 8월부터는 예년 같이 소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출하두수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7월 돈가보다는 100원/kg 정도 높게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최대 명절의 추석이 9월 말이어서 절기로 보아 여름이 예년보다 길어 돈육 소비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0월부터 돈육 비수기로 들어가면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수입육의 덩핑판매가 지속된다면 11월 돈가는 떨어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농가들은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육가공 업체가 2년 연속

## 8월 지육가 3,300~3,400원/kg 예상

되어 국내 육가공업체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덜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최근 외국인이 "왜 한국만이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한 영향이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 한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

최근 돈육 시장은 폭탄을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루살이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 누구도 전망을 정확히 할 수 없어 방향 설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 가공업체는 마지못해 도축 및 가공을 하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가 2개월만 더 지속되면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것이 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한번 떨어진 돈가는 즉시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국제 돈가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져 다소 위안이 되기도 한다.

9월, 10월 돈가, 사육두수 및 모돈두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2000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양보**

8월부터는 예년 같이 소비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출하두수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7월 돈가보다는 100원/kg 정도 높게 형성될 것이다.



다 이옥신 파동 여파가 상당기간 끌고 가면서 이달 들어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소비는 다이옥신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수기에 접어들어 다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산육의 경우 어느정도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입육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생산, 수입전개에 앞서 선결돼야 하는 것은 소비부문에 있다. 최근 소비는 다이옥신 파동 기간 중 30~50% 감소에 비해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여

통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육은 kg당 3~4백원이 하락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육은 국가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 덴마크산의 경우 kg당 4천6백~4천7백원하던 것이 4천1백원~4천2백원에 컨테이너 베이스로 유통되고 있는 등 저가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수입육이 이같은 유통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돼지 산지 및 돼지고기 지육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 국산 가격 강세지속, 수입산 물량 압박

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연일 상승가를 치고 있어 아이러니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잠깐이지만 축공의 파업으로 서울지역 돼지사육 가격은 kg당 3천6백원을 넘어서는 현상도 보였다.

이에 따라 육가공업체는 물론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입육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스산이 유통해제되면서 소비감소에 따른 다른 수입육 재고량과 맞물려 물량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수입육 유통흐름을 읽는 것은 국산육 유

이러한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수입육 재고는 수입업체들의 자금압박은 물론 유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입육이 국산 돼지고기시장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 국내 가격은 또 한번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양봉**

수입육 유통흐름을 읽는 것은 국산육 유통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